



자유기고 ①



한농연 함안군연합회  
수석부회장  
조명래

# “협동조합 개혁 없이는 우리 농업 회생 없다”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자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고비용 체제개선은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만큼 협동조합은 농민들의 생활과 농업경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에시당초 협동조합의 설립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이 함께 모여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에 와서는 조합원이 아닌 경영책임자와 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전락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협동조합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우리농업의 회생은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이미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개혁 운동이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어 농민조합원의 개혁방안을 조합에 요구하여 원만히 협상을 타결한 조합이

있는 반면에 내부진통으로 조합을 해산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가는 협동조합도 있었다.

아픔이 없는 개혁은 없을 것이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새봄에 꽃을 활짝 피우듯이 우리농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인지도 모른다.

“불을 짚힌 냄비 안에 들어앉은 개구리가 뜨거움을 바로 느끼지 못한 채 따뜻한 온기에 젖어 주저앉아 있다면 그 개구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재빨리 상황을 감지하고 냄비를 뛰쳐 나가야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우리협동조합 또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지도 모른다. 쌀 협상과 농가부채 문제 등 우리농업의 앞날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 한농연의 중점 정책인 협동조합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우리 함안군연합회에서는 지난해 협동조합 개혁운동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함안군지역협동조합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합장 간담회,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하여 협동조합 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11월 각 조합 예산총회에서 개혁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각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노력한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지역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경영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조합사업 참여가 확대되어 협동조합발전의 디딤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협동조합개혁문제가 오늘 내일 거론된 문제가 아닌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여 얽힌 실타래를 풀어 가는 지혜를 모을 때다.

정부, 농협, 농민단체, 조합원, 직원 누구도 같이 하지 않고 제 각각의 목소리만 낸다면 협동조합 개혁은 길어질 뿐이다. 서로의 명분과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을 택하여 굵은 상처를 도려내고 강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농업의 산적한 문제들도 하나 하나씩 풀어 나갈 것으로 기대해본다.